**데이비드 터너 박사, 마태   
복음 강의 10A – 마태복음 23장: 예루살렘 정부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강의 10a입니다. 데이비드 터너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 가장 엄숙한 구절 중 하나인 마태복음 23장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 건국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던 이후로 여러 유대 지도자들과의 갈등만 계속되어 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구약의 선지자처럼 말하는 것을 꾸짖으시면서 상황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소개하기 전에 몇 가지 문맥적 질문을 다루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은 마태복음의 논증에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이 장은 담화이기 때문에 블롬버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24장과 25장과 연결 짓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4-25장과 연결 짓는다면, 이 담화는 마태복음 13장의 패턴을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3-34-36장에 주목해 보세요. 13장에는 첫 번째 공적 가르침(이 경우 23장)이 있고, 이어서 24-25장에서 제자들을 위한 개인적인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의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은 장르, 주제, 문학적 구조 면에서 통합되어 있는 반면, 23장과 24-25장 사이에는 독자층, 즉 두 개의 다른 독자층이 관련되어 있으며, 내용과 어조 면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3장은 21장 15절에 시작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대면 사건의 절정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동시에, 23장과 24-25장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성이 있는데,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박해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23:29-36을 24:9-13, 24:21-22, 25:34-40과 비교해 보십시오. 또한 성전의 황폐(2장, 23-38절)는 24:1-3과 24:15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23-3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은 24장과 25장에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세 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처음 12절에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에 대한 예언적 재앙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비난하시고, 그들의 반역을 조상들의 반역과 연결시키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반역적인 예루살렘의 애가에 대해 통렬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는 23장 37-39절에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갈망과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묘사합니다. 보충 자료 39페이지에서 설명했듯이, 마태복음 23장의 배경을 앞선 문학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끊임없는 논쟁입니다. 여러 무리가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을 드러내고, 나쁘게 보이게 하고,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제가 이미 다섯 가지를 나열해 드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그리고 몇몇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율법교사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논쟁의 형태는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성경 구절, 비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포함한 답변으로 응답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22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끝맺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또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종말론적 담론을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논쟁은 22:46에서 교착 상태로 끝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23:1-12에서 제자들에게 그 지도자들처럼 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23:13-36에서 그들에게 일곱 가지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23:37-39에서는 예루살렘의 운명을 애통해하시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시면서, 아마도 에스겔서에 나오는 셰키나의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을 재현하시는 듯, 제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24장 1절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건축물을 가리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성전의 임박한 멸망에 대해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이 담론의 시작이 되는 질문, 즉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24장 2-3절에 나오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한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라는 질문으로 대답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특히 그 지도자들과 성전에 대한 심판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예언되기 전에 마태복음 23장에서 정당화됩니다. 우리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와 반유대주의라는 현대적 문제의 맥락에서 마태복음 23장을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이 신약성서와 반유대주의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유대교 학자 사무엘 샌드멜은 마태복음 23장을 독특하고 비할 데 없는 비난의 표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어의 마태복음 주석에서도 비슷한 생각이 드러납니다.

마태는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의 논쟁을 과감하게 부각하며, 이러한 논쟁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재앙을 예언적으로 선포하심으로써 절정에 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날카로운 비난에 동요하지만, 고대에는 종교적 논쟁을 위한 격렬한 수사적 표현이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수사적 표현은 성경 예언자 시대부터 유대인 사회에서 사용되었으며, 제2성전 시대에도 다양한 유대인 단체들이 예루살렘 종교계, 특히 사해 두루마리의 기원이 된 단체들을 비판하면서 계속 사용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강의 서론에서 마태는 교회와 유대교의 비극적인 결별 이전에도 여전히 유대인 공동체와 상당 부분 동일시되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이 책을 썼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마태가 이 책을 썼을 당시, 오늘날 유대교와 별개의 종교로 여겨지는 기독교라는 용어는 서기 70년 성전 파괴 이전 시대의 다양한 유대교의 한 분파였습니다. 따라서 마태는 시대착오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기독교 비판가가 아니라, 유대인 예수의 정체성을 놓고 다른 유대인들과 격렬한 내부 논쟁, 즉 성벽 안에서 논쟁을 벌이는 기독교 유대인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마태는 메시아닉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닉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시키려고 글을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마태는 유대인이나 유대교를, 자신의 새로운 종교가 유대인들의 낡은 종교를 대체했다고 주장하는 이방인으로서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잘못된 접근 방식은 초기 교부들의 논쟁적인 저술에서 유래했을 수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오히려 마태는 예수와 유대 지도자들의 논쟁을 예루살렘 종교계에 대한 철저한 유대적 예언적 비판으로 제시하며, 토라의 가치로의 회귀를 촉구합니다. 이를 모든 시대의 유대인, 심지어 예수 시대의 유대인에 대한 공격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의 엄중한 비판은 예수 시대 예루살렘 종교계에서 두드러졌던 일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마태복음 2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나머지 개요에는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는 마태복음 23장의 세 가지 주요 내용과 일치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두 가지 리더십 모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과 갈등을 빚어온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라 군중과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23장 3절 하반절에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위선을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셨기에, 유대 지도자들은 여전히 중요한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23장 2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인도할 정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지도자로서의 지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지만, 4절과 3절 하반절에서 그들의 위선을 공격하십니다. 또한 23장 4절에서는 그들이 스스로 요구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억압적인 요구들을 공격하십니다. 5절부터 7절에서는 그들이 권력과 명예를 탐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십니다. 따라서 그들의 모델은 과시, 명예, 그리고 권력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산상수훈에서 다루신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아버지와 메시아께만 경의를 표해야 했습니다(마 23:8-10). 그들은 자신의 직함을 과시하며 돌아다니지 말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학력이나 안수 직함 등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많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담임목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오만함과 자만심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자들의 공동체는 20장 25절에 나오는 유대 지도자들의 위계적인 모델이 아니라 평등주의적인 가족 모델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스승이자 지도자로서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겸손하게 실천하셨다는 사실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20장 28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와 그의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외심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므로, 그분들을 칭하는 데 사용하는 칭호는 존경과 경외심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부르는 방식이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도록 강요하는 방식은 단순히 서로를 형제자매, 또는 가족의 일원으로 부르는 방식을 따라야 하며, 어떤 거대한 조직 구조나 화려한 칭호를 사용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달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르친 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순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경계하라고 경고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권위의 정당성을 공격하지 않으시지만, 제자들에게 23장 3절 전반부와 23장 23절에 나오는 토라와 할라카에 대한 그들의 설명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폭로자들은 마태 공동체가 이미 유대교에서 분리되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 공동체가 초기 유대교 지도자들과 여전히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면 23장 3절 상반절은 충분히 타당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선포하신 재앙에 대한 예언적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3장 13절부터 36절까지 일곱 가지 화에 대한 예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킹 제임스 성경이나 대다수 본문을 기반으로 한 영어 번역본을 보면 여덟 개의 화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나 14절은 초기 사본들 대부분에서 발견되지 않으며, 다른 구절에서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현대 역본들은 14절을 예수님의 진정한 고난 중 하나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14절을 생략한다면, 첫 번째 신탁은 23:13에, 두 번째 신탁은 23:15에, 세 번째 신탁은 23:16에, 네 번째 신탁은 23:23에, 다섯 번째 신탁은 23:25에, 여섯 번째 신탁은 23:27에, 일곱 번째 신탁은 23:29에 있게 됩니다. 이 신탁들을 살펴보면 세 쌍으로 나오는데, 처음 두 쌍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그리고 개종자를 만드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쌍, 즉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할라카(율법), 즉 율법 해석, 즉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법적 판결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진정한 청결함, 즉 진정한 정결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23장 29절 이하에 나오는 마지막 신탁 은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 즉 예언자들을 배척한 유대인들을 향한 신탁과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절정에 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 이 신탁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약의 예언적 신탁을 생각해 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자주 화를 외쳤습니다. 이러한 예로는 이사야 5장 8, 11, 18, 20, 21, 22절, 이사야 5장에 나오는 여섯 가지 화, 아모스 5장 18절, 6장 1절, 6장 4절, 하박국 2장 6절 이하, 그리고 다섯 가지 화, 스가랴 11장 17절 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탁들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닥칠 극심한 결과에 대한 분노, 슬픔, 그리고 경각심이 뒤섞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재앙의 선포 후, 그러한 신탁들은 재앙이 임할 사람들에 대한 묘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묘사는 재앙이 마땅히 내려야 할 이유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화에 대한 신탁은 그 근거가 되는 전제에 앞서 결론을 제시합니다. 화에 대한 신탁은 언약의 저주(신명기 27장 15절)나 심지어 예레미야 22장 18절과 같은 장례식 애가에서 발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마태복음 23장 외에도 화에 대한 신탁이 다른 곳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26절, 요한계시록 18장 10절과 그 뒤의 몇 구절을 살펴보십시오. 쿰란 문헌, 즉 사해 사본에도 많은 화에 대한 예언이 있으며, 위경인 에녹서 1서와 2서에도 화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심지어 탈무드에도 화에 대한 감탄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앙의 예언에서 선지자의 태도가 단순히 분노에 찬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선지자의 분노는 때때로 이스라엘이 그 죄로 인해 치러야 할 끔찍한 대가에 대한 슬픔과 불안으로 완화됩니다. 선지자는 죄에 맞서 하나님을 대변하며, 이것이 그의 분노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자기 백성을 향한 것이었고, 이것이 그 슬픔을 설명합니다. 재앙 예언의 뚜렷한 애절함은 예언자의 이중적인 연대감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는 자신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자신이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예언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예언을 선포할 때 예언자들은 자기 백성의 파멸을 선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언적 재앙에 대한 이 간략한 개요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결론이 도출됩니다. 첫째, 예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내리신 재앙에 대한 선언은 혁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구약성경에 익숙했던 것처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분의 엄중한 언사는 그들에게 익숙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당시 제2성전 시대의 종파 문헌을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고난은 오히려 당시의 상황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은 단순히 적들에 대한 악의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2337절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예수님의 말씀은 분노만큼이나 슬픔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제기된 위선에 대한 비난입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위선자들을 열네 번이나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해당 단어들은 성구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일곱 가지 화의 선언 중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위선자로 언급하는데, 유일한 예외는 2316절입니다. '위선자'라는 단어는 셈족 문화나 언어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유래한 것으로, 대답을 하거나, 신탁을 해석하거나, 다른 사람을 흉내 내거나, 극중에서 특정 역할을 연기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때때로 속이기 위해 가장한다는 개념이 등장하지만, 단어 자체가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위선자는 영원한 신의 인정보다는 덧없는 인간의 박수갈채를 위해 사는 자들을 더 구체적으로 지칭하는데, 이는 6장 18절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위선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15:7, 8). 위선자는 악한 의도를 품고 예수님께 질문할 때 진정한 종교적 관심을 보이는 척합니다. 더 나아가, 그런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23:3). 따라서 마태복음에서 위선은 종교적 사기, 즉 외적인 경건한 행동과 내면의 악한 생각이나 동기 사이의 근본적인 불일치 또는 불일치를 수반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은 종교적 사기를 정죄하는 가장 중요한 예언적 본문일 것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7-9절에서 인용하신 것으로, 이사야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야 29장에서 자행되는 사기는 겉보기에 경건해 보이는 말과 전통적인 규율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과 하나님의 눈에는 숨겨져 있다고 생각되는 계획을 위장하는 것입니다(29:14). 이사야의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들인 선지자들은 말이 없었고(29:10-12), 재판관들은 부패했습니다(29:20, 21).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외적인 종교적 의식은 계속됩니다(29:1). 예수님은 이 구절을 식사 전에 의식적으로 손을 씻는 것을 고집하면서도 부모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 약속된 것이라는 사기성 주장으로 부모를 모욕한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적용하셨습니다(15:5).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 명백히 인정된 이 코르반 관습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15:6). 또한 의식적으로 손을 씻는 관습은 더러움이 악한 마음이라는 내부 문제로 인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원인에서 사람에게서 오는 것으로 보는 근본적인 오류를 범했습니다(15:11-20). 위선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은 구약성서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29장의 핵심 구절에 추가할 수 있는 구절이 많으며, 제2성전 유대교 문헌에서 발견되는 질책과도 유사합니다. 솔로몬의 시편, 모세의 승천, 쿰란의 공동체 규칙, 그리고 후대의 랍비 문헌인 탈무드, 바라코트 14b , 소타 20c 등에서 위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의 위선을 불평하고 비판하던 유대인들 사이에서조차 홀로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의 핵심적이고 더 기본적인 비난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선지자들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23장 29-3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선지자들을 배척했다는 비난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발견되는 가장 심각한 비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난은 그곳에서 직면한 다른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의 말만 들었더라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의 말만 들었더라면, 변론과 맹세, 그리고 사소한 의무를 기본적인 의무보다 우선시하는 일이 흔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의 말만 들었더라면, 의로움의 외형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역사 전반에 걸쳐 선지자들을 거부해 왔으며, 그 거부는 메시아(23:32)와 그의 사자들(23:34)을 거부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부터 마지막 책, 즉 창세기의 가인부터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책인 역대하의 스가랴까지 무고한 피를 흘린 죄악을 드러낼 것입니다. 마태가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바빌론 유배를 강조하는데, 이는 물론 선지자들의 배척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선지자적 책망으로 제시되며,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엘리야와 같은 인물로 배척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박해를 받을 때, 5장 12절에서 선지자들도 비슷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격려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서는 예수의 제자들의 사역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선지자의 거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25장 35절에서 45절도 참고하십시오.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 마태복음의 독자들에게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을 거부했고, 그들을 거부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배척했다는 예수님의 비난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유사한 비난과 분명히 일치합니다. 역대하 36장 15절과 16절, 다니엘 9장 6, 9, 10절, 신명기 28장 15절 이하가 그 예입니다.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을 배척한 예로는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와 미가야를 배척한 것, 열왕기상 18장과 19장, 열왕기상 22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배척한 것,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 그리고 다른 예언서들이 배척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벨과 사가랴의 살해를 암시하신 것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살해된 전체 역사를 효과적으로 요약하는 것으로,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역대하로 끝납니다. 이 구절들에 대해서는 창세기 4장 8절 이하와 역대하 24장 21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을 배척한 것은 제2성전 시대 유대인들의 문헌에서도 자주 강조됩니다.

희년서, 예레미야의 파를레 포모나, 1세기 유대교 서적, 선지자들의 생애, 이사야의 순교와 승천, 쿰란의 여러 자료들, 그리고 이곳의 여러 자료들 역시 이 점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재앙의 예언들은 매우 어렵고 직설적이어서, 그저 듣기 좋은 말투에만 익숙하다면 그 비난이 다소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주님께서 그곳에서 사용하신 언어는 구약 선지자들의 언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곧 지도자들을 대적하도록 인도하신 언어의 유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3장을 마무리하며,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애통해하시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애통해하시는 모습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분의 반감 어린 비난에 대한 매우 공감적인 결론입니다. 이 애통에서 예수님의 백성과 도시에 대한 연민이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9장 36절과 11장 28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요한계시록 18장 10절 이하와 같은 다른 감동적인 성경의 애가들은 예수님의 이 애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도시의 지도자들이 자신을 부끄럽게 대하는 모습과 앞으로 닥칠 끔찍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과 도시를 위해 깊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바울이 그랬듯이,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자비를 깊이 생각하고 메시아의 백성에 대한 자신의 관심의 정도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오만한 태도는 언제나 경멸스럽지만,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부터 24절까지를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신비로운 관계를 보여줍니다.

같은 그리스어 단어가 23장 37절에서도 예루살렘 사람들을 모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열망과 그들이 모으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으고자 하였으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거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도다." 22장 3절과 사도행전 7장 51절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나란히 제시하는 다른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아버지를 나타내심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23장 38절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23장 39절에 따르면, 그 상황은 미래까지 지속됩니다. 즉, 긴장은 미래까지 지속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는 한, 그들은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축복한다면, 지금까지 거부했던 왕국의 축복을 궁극적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3장과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의 언어가 가혹하고, 예수님 시대의 특정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표현이 현대의 상류층을 매우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 세기 동안 기독교인들이 이 표현을 반유대주의적 태도, 더 나아가 종교재판, 포그롬, 심지어 독일 홀로코스트까지 확증하는 데 사용해 왔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초기 이방인 교회가 마태복음 23장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며, 이 오해는 바울이 로마서 11장 18절에서 21절까지 경고했던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현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현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대한 이방인식 오해의 역사는, 표현을 좀 더 허용한다면, 유대적 이해, 즉 화에 대한 예언의 유대성과 위선, 그리고 선지자들의 배척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는 이해로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지적인 이해는 세심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수님과 로마서 9장 3절에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기독교 관계의 안타까운 현실을 슬퍼하지 않는 한, 지적인 논쟁이 아무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유대-기독교 관계의 안타까운 역사를 고려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3장, 특히 23장 8절에서 12절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점검하기에 절실히 필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23장을 단순히 예루살렘의 고대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장은 또한 고대와 현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본보기를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데이비스와 앨리슨은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기인하는 모든 악행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옳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려는 자들은 위선과 허영심으로 인해 증거가 훼손된다면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 메시아의 모습을 본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직함과 겸손은 오늘날까지도 유대-기독교 관계를 훼손하는 태도와 잔혹 행위로 인한 피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3장을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가는 몇 가지 설명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군중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라고 외쳤습니다.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입니다. 지도자들이 분노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이 말이 터져 나왔지만, 아이들도 따라 외치며 동의했습니다.

23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거부했던 바로 그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며칠 전 군중들이 외쳤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라는 동일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묘사된 지도자들의 죄악적인 반역은 그들의 공적 권한 때문에 더욱 극악무도하게 묘사됩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올리브 산, 즉 종말론적 담론을 하시는 맥락입니다. 헤롯 왕이 아름답게 꾸미고 확장했던, 파산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집전했던 이 인상적인 성전 경내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황폐하게 만드는 신성 모독으로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라고 진심으로 그분께로 향할 것입니다.